

울산공업단지 시찰기행

안인보



시찰단 일행

지난 여름부터 협회에서는 당국과 교섭하여 울산, 부산방면의 약진하는 건설상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본회 회원에게 부여코져 본협회의 금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노력한바 당국에서도 쾌히 응락하여 50명 안팎의 구성으로서 되는 시찰단을 안내해 준다는 반가운 소식에 본협회에서는 우선 전 회원에게는 미치지 못하나 서울지부회원의 시찰단 참가 희망인사를 추천보고케 하고 잔여는 각도지부의 임원중에서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는 뜻도 겸하여 동행하기를 권고하여 일행 50명이 서울역에 집합하여 출발하기로 하였었다. 출발날자는 1969년 9월 22일 (오전 10시)로서 일행은 마치 어린이들이 먼 지방으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한껏 동심에 젖어 그날 9시에 벌써 지정된 곳에 도착한 회원이 여러분이었다. 각자 여행백이며 카메라를 어깨에 걸치고 서로들 손을 들어 인사하기에 한참이다. 헌데 출발시각이 다가와서 플랫폼·홈에 들어갈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50명을 계산했던 인원이 30명 안팎으로 불참하는 분이 꽤 많이 생겼다. 가만히 생각하니 추석대목이 며칠 앞남은 바쁜때라서 그렇게 된 것임을 깨닫고 여러분께 그 경황을 말했더니 여러분 역시 동감이라 한다. 오늘이 이 시찰단은 본 협회 에서 그간 이일의 성취에 애써오신 사업담당 이사 김진천형이 단장으로서 일행을 인솔하기로 되었고, 본 협회 사무처에서는 일행의 뒷바라지 일을 담당코져 기획부장 배원석씨가 배속되어

서 일행에 앞서 서울역에 나와서 보살핌이 믿음직스럽다. 그리고 당국에서 우리들 일행의 안내를 맡은분이라면서 김이사가 일행에게 소개를 시켜 초면으로 뵈웁게 된 분은 김건이씨라 한다. 이분은 이번 시찰여행에서 교락을 같이하고 시중 친절하신 설명이며 행여 여행도중에 단원중에 피로, 발병, 기타 무슨 사고가 생길세라 세심한 보살핌에 수련도 평안하게 취하지 못한것을 옆에서 보고 절감했고 일행은 중내 무사한 시찰여행을 마치게 되어 감사를 드린다.

집합된 회원중에는 멀리 마산, 대구, 광주에서 경남, 경북, 전남지부의 각지부장님과 경북의 임삼륙씨 경남의 이정섭씨 충남의 김세환, 정진경 양씨등은 부산방면 직행을 하셔도 될것을 본협회에서의 연락불충분으로 서울까지 와서 다시 그 먼길을 되밟아 가시게 하는 번거러움을 끼치게 해드려 지금은 한날 회원으로서 이 시찰단원에 끼인품이나 전일까지 본회에 있어 본 나라서 무척 미안하게 생각하였다. 다음은 제코오스를 예정대로 떠날 서울 및 경기지부회원으로선 인천에서 심의권 경도지부장님과 김남규 경기도지부감사 두분이 와 계셨고 서울지부에서는 이춘상 간사님을 비롯하여 장태환, 안완수, 허균, 이병균, 김은배, 김충득, 이운상, 박규정, 이증문, 함정호, 송인창, 안정환, 김영정만선 등 여러 회원님들이 모였다. 여기서 또한 부산지부의 김태진회원님도 경남, 경북지부장님과 같이 옛 갈린 연락으로 서울까지의 왕복승차를 부득이 하시게 되어 거듭 미안함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모인 우리들은 시간이 다가오자 김건이씨의 안내와 김진천이사의 인솔로 신관 2등대합실에서 배부된 용패("공업단지시찰단"이라고 새겨 졌음)를 각자 가슴앞에 달고서 플랫폼·홈으로 들어 갔다. 지정된 차칸은 "비둘기" 호라는 열차의 맨뒷칸으로서 2등객차를 말끔히 새로운 카바로의 자동발이틀 세워놓고 깨끗이 청소된 차안은 과연 최상급의 열차여행임을 알려 주는것 같다. 게다가 50명을 예정한 인원이 30명으로 줄어서 여유있는 좌석은 좀 아깝게 생각되며 이기회를 마련해주신 당국에 대하여 본협회는 죄송스럽기 한이 없었으며 이렇게된 우리들의 처지가 어찌나 부끄럽던지 남에게는 눈에 띄이지 않겠으나 나스스로 자라락 움츠려 들듯이 되어 내내 그 점

에 대하여선 얼굴이 화끈 거렸다. 10시 정각이 되자 우리들이 탄 이 기차는 6시간의 질주를 다짐하듯 스프링 미끄러져 가며 떠났다.

차가 떠나면서 문득 일행의 시찰여행도중에 아무 사고가 없어야할텐데……하고 속으로 기도를……。 한갓 약하고 약한 인간이 삼라만상을 섭리하시는 거룩하신 그님에게, 보이지 않는 그님에게 종전에도 그랬듯이 새삼 조용히 마음속에서 합장기원 한다. 물론 열차의 정비가 완전하게 승객이 질서정연하게 교통당국의 운행조작이 무결한 것이라도 나는 가끔 교통기관의 대소사고들이, 과학적 분석으로든 제 나름의 까닭이 있어서 생겨진 것이겠지만, 그것을 미리 밝혀내지 못하고 그것을 미리 막아내지 못하는 인간의 약한 처지를 미독교의 나는 내 나름대로 오직 한분인 그님 곧 “한님”에게 갖 것 떨어진 얘기가 어머니젓가슴 품속에서 오직 그 어머니가 최고의 보호자뿐일 눈초리로 믿는것과 같이……。 내 어리석은 생각으로 자 종교간의 배타에 시시비비를 밝혀 낼길 없고, 착하고 바르고 너그럽고 하신 그 “한님” (오직 한분으로서 크고 크신님)이, 기독교에서 모시는 “하느님”, 불교에서 모시는 “부처님”이라면 더욱 좋다. 달리기 시작한 기차는 어느듯 한강철교를 지나 노량진, 영등포역도 한두마디 얘기를 할동안 지나쳐 버린다. 찻칸 안을 휘 돌아보니 일행은 의자마다 찬칸이 짝을 지어 다정스럽게 들 속삭인다.

이 차내광경이야말로 우리 건축사들의 가장 정다운 담소광경일 것이다. 그들의 당면 목표는 같은 곳을 함께 시찰하여 같은 보람을 얻고져 같은 여행의 즐거움을 누리고져 같은 찻칸에 앉아서 특급으로 달리고 있는 것이다. 오산, 천안간을 달리면서 청주에서 천안쪽으로 뻗치는 경부고속도로의 새로운 모습이 스쳐 간다. 멀지 않아 이 구간은 준공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다. 우리들의 기차는 천안역에서 수분간 정차를 하고 다시 달리기 시작한다. 차창밖은 떠날때부터 아직까지 푸른 물결로 풍년을 찬미하듯 연변전원은 한결같이 싱그럽기만 하다. 여기저기 농가들이 한가로히 울타리 숲의 그늘을 지니고 마을 앞을 바라보고 있다. 저 마을마다 매미소리가 한창이겠지? 기차는 어느듯 잠담으로 꽃을 피울새 대전역에 닿았다. 혹, 대전회원이 이곳에서 합류차 나오지 않았나하여 밖에 나가 서성 거렸다. 아무도 안 나왔다. 연락이 잘 안된 모양이다. 또 때가 추석대목을 앞둔 바쁜때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 양제관 총남, 표재범총북 두 지부장님이 안갈턱이 없는데 이렇게 못 나오신걸 보니 암만해도 추석대목 앞이라서 불가피 못 나오신것 같다. 기대했던 그분들의 승차를……



차 중에서의 시찰단 일행

이렇게 되고보니 섭섭하고 허전하기 짝이 없다. 타고가는 기차는 옥천을 지나 추풍령 언덕바지에 접어 들었다. 가다가 떠엄떠엄 경부간 고속도로의 건설작업장이 나타 난다. 되도록 험난곳을 피하였으나 최단 직행선을 선정하는대는 다소 험난한 장소라도 짜르고 들우고 할 수 밖에 없었음인지 꽤 높은 고개마루턱을 깎아내느라 증기등 장비가 한군데에 밀집된 곳이 눈에 뜨인다.

숫한 인원과 동력을 동원하여 1969년의 이시점을 훗날 우리들의 자손들이 대한민국의 중흥과 대약지의 시기의 시발점이었음을 자랑으로 여기고 추모하는 시대로 삼을것을 오늘의 우리들은 되새겨 간직하며 몸과 마음을 강철같은 인내로서 맘을 홀리며 급진하는 세계 문명속에 이만치 처진 우리들의 경지를 떨치 않은 그 어느날에 가서는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가장 발전된 나라로 이끌기 위하여 모든 과학스런 직업의 소유자는 그 천부의 두뇌를 십분 발휘하며 모든 경륜을 도맡은 나라의 지도층은 먼 앞날을 예견하는 혜안과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의 교적 역사속의 범 서민적 생활의 실학적 역사조류에서 배달의 핏줄을 이어받은 온갖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단군이래 최대의 겨레 받들고 나라사랑에 몸과 마음을 바쳐 이바지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커다란 포부와 나라안의 정치적 역사의 용광로속에 서는 지난날 조상들의 평균중신들의 유적을 거울 삼고 비록 왕정이었으나 전제를 물리치고 집현공론의 증은 점을 좇아서 치정을 하였든 이조의 세종대왕 같은이의 업적을 본받아가며 조정제신의 참정의사에서 중의토론은 좋았으나 편당대립으로 코앞의 아전인수적인 쟁의로 나라의 먼 앞날을 그르쳤든 우리들의 지난 역사는 너무도 비참하였거늘……。 오늘에 와서 그대의 승자나 패자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 따라서 이 시

대의 우리들은 저러한 못된 편싸움하는 기질의 독소가 저래들의 혈관속에서 잠재해 있는 것이라면 남녀노소 할것없이 각자가 그 독속의 용해에 주야로 정력을 기울이어 그 독소는 오히려 인간이 슬기롭고 어질고 바른 기품의 요소로 바뀌놓을 수 있는 계기조성을 만인이 그 본질에서 저절로 그건 “옳았어” 외래말로 “갯즈·라일”을 의칠수 있는 시행정당의 앞날의 결실을 초태할 수 있는 주권자 국민들의 소망을 채워주는 썩직한 지도층을 그려 보며 주마등같은 뇌속의 역사막에 잇달아 비취지는 해내의를 막론한 선군명현들의 추상 모습에 한동안 멍하니 무아지경으로 있는데 깜짝 열차의 동요소리에 현실의 나로 돌아가 창밖을 내다보니 추풍령역을 지난 영남에 내리마지 이었다. 이곳 역시 고속도로의 작업장이 잇달아 솟박꼭질하며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한다. 깊은 계곡에 배수합거를 콘크리트로 시공 중인 것이며 낮은 지형위를 흙돋우기(盛土) 작업을 하는 것이며 적갈색의 흙빛이 한층 신설공사의 우람찬 모습을 돋보이게 한다. “이제야 너는 잉태의 고통을 치는구나! 경부고속도로여! 튼튼하게 태어나라! 너는 태어날 이나라의 핏줄이며 젖줄이어늘...”. 너를 낳기 위해서 잉태를 시작하기 전에 과학스런 진단과 태중성장계획을 세웠으며 너의 시작을 위하여 거룩한 예식도 베풀었고 너의 성장을 위하여 수많은 건설종사자가 임상의원이 되어 연일 땀을 흘리며 분투하고 있으며 너의 고교가 우렁찬 출산을 온저테가 고대하고 있다. 너는 훗날 완전하고 건장하며 부지런한 이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이다! 만의 일이라도 기형아나, 약질이나 나태자가 되어서는 안되지. 아암 안되지” “아따 그양반 별걱정 다하네. 방정 맞게서리!” 태아 고속도로가 발근성을 낸다. “나는 당신네 인간과는 달라서 비록 태중이나 다 알고 있어! 나를 낳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 들였는지 말이오! 나는 벌써 그런 고마움도 알고 있오. 은혜도 갚을줄 알고 있오! 그러므로 나는 날때에 국민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는 모습으론 나타나지 않는다오! 보시오 그백 가서 내 모습을! 튼튼하고 미끈한 멋장ירו! 늙늙하고 부지런한 일꾼인 것을!” 하며 킁칭이 쟁 울러 온다. 태아고속도로의 호된 깃구 소리가! 아암 그럴테지 그렇고 말고, 그백야지! 이런저런 상념에 사로잡혔을때 창밖은 부슬비가 나리고 있어 열차의 동요소리는 물결을 타듯 부침한다. 획획 검은 그림자가 소리를 내며 지나가기에 자세히 내다본 즉 김천역이다. 조금지나서 철교를 통과중인데 2년전에 지나던 그때는 이 개울에 모래터가 넓게 보였는데 오늘은 물이 가득히 개울을 덮어 흐르고 있다. 수일 전 이지방의 폭우가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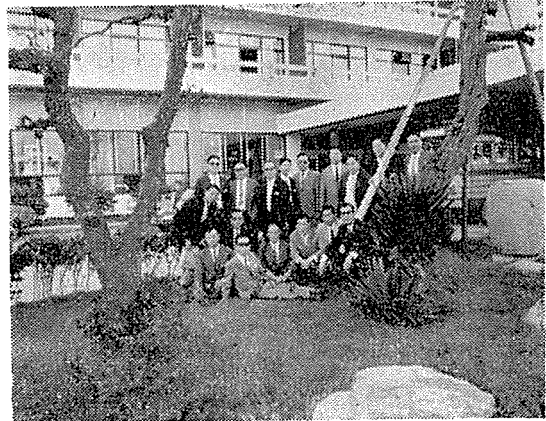
다. 얼마 안가서 달리든 열차는 속도를 늦추며어떤 역으로 들어가서 슬쩍 서버린다. 웬일일까? 아아 벌써 대구다! 주섬주섬 차밖으로 나가는분이 있다. 나도 뒤따라 나갔다. 거의 여러분이 다 나갔다. “행여 연락을 늦게라도 받아서 합류차 승차하는 대구 회월이 있을지도 모르기에...” 라는 경북지부장님의 말씀을 따라 일행은 플랫폼·홈에서 출발신호때까지 그분들의 영접차 서성거렸다. 허나 여기서도 차타터 온 이는 없었다. 발차신호를 하는 차장의 모습을 바라보고서는 일행들은 종종히 승차를 서둘렀다.

어느듯 열차는 경산의 사과밭을 스치며 지나간다. 이고장의 명산 대구능금의 원산지들... 지금은 널리 사과재배가 보급되었지만 해방전 남쪽의 대구와 서북의 황주는 각각 사과산출의 자웅을 겨루었다. 6.25배의 남하피난민들이 전하는 소문으로는 해방직후 거의 황폐화되었다는 황주사과의 슬픈 소식이었다.

K. B. S 토막 드라마인 북한방랑기를 들을적마다 그 벽두사속의 한구절인 “...어쨌든 북녘땅은 핏빛으로 물들었나?”라는 대목은 우리들의 가슴을 에이어 내는 쓰라림을 준다. 아서라! 슬픈 감상은 금물이어늘. 잃은 땅의 사과는 생각해 무엇하나. 북의 실지가 어버이 대한민국 품안에 수북이 났때까지 인내로서 참고 견디어 가며 잃어버린 사과고장도 저어 화란사람들이 보불전 쟁배에 잃은 영토를! 바다를 메꾸어서 육지를 대신 늘었다는 말대로 우리들은 자그마한 구능유휴지라도 누리지 말고 땅을 일구어 심고 가꾸면 제2, 제3의 대구사과, 나아가서 제2, 제3의 황주사과를 남한 영내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과수계에 조예가 많으신분 또는 신중독자가들중에서는 이미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차는 다시 평음과 더불어 칠혹속을 달린다. 청도 못미쳐 터널이다. 이곳은 나에게 커다란 추억을 남겨준 곳이다. 거금 26년전에(1943년7월) 22세의 풋내기로서 일제 진해 군 시설부에 해군건축기술자로 어찌다 징용에 걸려 수송되는 열차가 증기기관차를 선두에 하나 열차 중간쯤에 하나로 두대의 기관차가 20여량되는 객차만 화차반의 편성열차이었는데 터널속에 들어갔다간 멈춰서 되돌아 내려오곤 하기를 2,3차 하드니 급기야 터널속 마루턱을 넘어서 벗어나나보다 하고 안도의 숨을 쉬는것도 찰나로서 딱 그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닌가? 차안은 여기저기 응성대기 시작했다. 연료인 석탄의 탄질이 나빠서 화력이 좋지못해 견인력이 약해서 그렇다는등 진부는 알길없으나 불안하기 짝이없다. 폐쇄된 창호지만 밝은 객차의 창호는 허술하여 터널속에 가득찬 매연은 사양없이 틈새로 스며들기 시작한다. 점

점 답답해지고 배연에 냄새는 그 고리타분한 도가 기
 세를 울려 배꼽하여 지며 가슴이 울렁 거린다. 초침소
 리가 들릴때 마다 이제는 공포마저 엄습한다. 그러나
 양쪽 기관차에서는 재시동의 화력을 더하는것인지 연
 이어 쿵쿵 소리를 질러 낸다. 그소리가 차차 크게 들리
 는 것은 시동이 틀림없음을 암시하는것 같다. 복중이
 라 후적지근한 갱내온기에다가 찌는듯한 기온에 전신
 에 용수처럼 땀이 솟아 입은 옷은 더운 목욕탕속에서
 방금 꺼내입은 듯 험언키 어려운 고역이다. 이마 윗쪽
 의 땀은 낙수처럼 눈썹을 넘어서 눈을 거쳐 흐르는때
 얼굴에 배연이 잔뜩 덮힌것을 직감하면서도 안구쪽으
 로 스며드는 땀을 견디지 못하여 손수건으로 실세없이
 얼굴의 땀을 닦아내나 시원치 않다. 공포가 겹쳐잡에
 따라 차내의 인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한다. 가만이 앉
 아서 죽음을 당하는 두려움으로... 그러나 이때 벽력
 같은 고함소리를 치는 자가 있다. "당황하여 질서틀
 어지럽히는 자는 용서를 안한다."라고... 호미한 불빛
 에 비는 그 고함소리의 주인공은 해군(일본) 특유의
 짙막한 대검을 뽑아 쳐들고서 위협을 하는 인솔장교의
 한사람이었다. 일행은 움찔 위세에 놀려 잠잠하여 진다.
 그러면서도 두려움은 저마다 소리없이 맞은편 얼굴에
 서 느낀다. 바로 이때 끌려가는 우리들에게(일본사람
 도 받은 차지 했었다) 제군은 비록 내일부터 군속이 되
 는 몸이나 우리 해군의 군인과 조금도 다를바 없다.
 군인 특히 우리 해군은 사나운 파도위에서 가끔 난항
 에 부딪치는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상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되며 칙칙으로서 자제하여야만 질서가 유지되
 며 살길을 찾는 것이어늘 실령 명령이 정확한 판단이
 아니라 죽는한이 있어도 그때는 적자로 황은에 보답하
 는 것으로서 영광으로 생각하라고 그들 독특한 위협훈
 시이나 어쨌든 좁은 터널속에서의 이사고는 각자 칙칙
 이 최상책임을 직감하고 한동안 죽은듯 적막이 흐르는
 데 천행이라 열차가 움직이지 않는가? 그리고 시동소
 리는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가슴이 차차 더해
 간다. 차창이 점점 명도를 낸다. 유리에 서린 안개가
 차츰 날라 간다. 자세히 보니 이미 터널밖으로 나와 내
 리바지 테일위를 열차는 달리고 있다. 굴속정차는 한
 40분간으로 기억된다. 각자의 얼굴들은 아닌밤중의 도
 깨비가 눈만 껌적 껌적 하듯 더나 없이 껌적으로 고양이
 또는 쥐를 그린듯 금세 그위로 땀이 줄줄흐르며 손
 에 쥔 헨커치르는 굴뚝을 쑤신것처럼 시커멓다. 땀에
 젖은 옷도 마찬가지. 게다가 움직일때마다 버석버석 일
 행들의 옷스침소리가 불협화음으로 아까의 고난을 지절
 대듯... 허나 다같이 안도의 낮빛과 기쁨의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이러한 경험이 나에게 있는 이 터널은



해운대 극동호텔에 여장을 뜬 일행

8.15 광복 후 가끔 지나보지만 이번 울산공업단지 시찰
 단여행차 시찰단의 일원으로 단체승차를 한 나로서는
 가물거리는 26년전의 그일이 되살아 나서 이제는 한낫
 지난날의 잊혀지지 않는 추억임에 이곳을 늘 험지로
 생각케 되는데 6.25전인가 그 어느때 이곳서의 사고로
 수많은 인명이 질식으로 가슴아프게 스러져간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회상되며 8.15해방후의 철도사고로서
 미제24군단장이었던 「하지」중장이하의 군정때 영동포역
 구내 열차전복사건과 저 죽령터널내 열차정체 질식사건
 및 지난해 겨울의 천안역구내 정차중 완행열차를 매진
 하여 오는 급행열차가 엄습충돌한 사건은 그동안의 3
 대 열차사고로 꼽을만 하다.

『모름지기 교통당국은 지난날의 철도참사를 회고명심
 하여 부실된 선로의 보안을 관장하는 보선업무, 노후
 와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의 원인을 내포한 각종차량
 의 폐기 내지 개량, 각종열차의 운행조작업무 및 일진
 일장으로 증대되는 교통량을 유감없이 흡수처리할 수
 있는 차량의 증배와 시설의 적중 확충사업에 주야론가
 도 실패없는 건곤의 노력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앞으
 로는 그 끔지스러운 인명의 손실과 귀중한 물자의 손
 실은 단연코 방지되어야 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으며 물자를 수송할수 있는 만반의 대책과 질적
 으로 우수한 철도요원의 확보가 있어야겠다. 철도는 아
 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량 수송수단의 제 1인자의 기
 관임을, 또는 이것처럼 서민스런 교통기관이 다시 겨늘
 자 없음을 절감하면 경부간의 철도는 2차왕복선의 증
 설, 기타 단선기존선로는 그 수송량을 감안하여 선후
 별의 차는 있을지언정 다같이 복선으로 하여야 할 시
 기는 그렇게 먼 앞날에 머물러만 있는것은 아니다.

청도터널을 지나서 청도역을 지나 열차는 밀양으로
 달리고 있다. 차츰 낙동강지류가 눈에 뜨인다. 옛그제
 서술서 뉴스로 들은 영남지방 60년래의 대폭우가 스쳐

간 흔적을 볼 수 있다. 어떤 길밀의 웅덩이진 곳에 정성드려 세웠든 비닐하우스 자리인듯 길옆에 “고등채소재배시험장”이라고 페인트 글씨로 쓴 표말이 눈에 뜨인다. 불난자리는 잿더미라도 남지만 물간자리는 남는 것 없다스니 짱그리 진흙 밭이다. 길 넘어로는 포도밭인듯 겨울의 풍경모양으로 넝쿨 뼈대만 앙상하여 잎사귀타곤 한잎도 볼수 없다. 게다가 흙탕물이 빠진 자욱으로 원통 넝쿨뼈대마다 진흙으로 매꼭질 해놓은것 같다. 저렁고쳐야 내년엔 다시 소생할가 의심스럽다. 이러한 광경은 밀양을 지나면서 낙동강 본류연안을 열차가 남하할수록 점점 그도가 비참을 더한다. 어떤 마을은 그앞의 캐 넓은 냇논이 환창 푸르려야 할텐데 원통진흙 밭이다. 마치 썩은 벼짚을 심어 놓은듯이 살풍경이다. 지상에서 본바 있지만 그 어느분의 글에 순박하고 우직스러우리만치 어린 이백성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이다지도 벌을 주나이까. 죄를 주나이까. 착한 백성에게 이 무슨 시련이오니까? 라는 뜻의 저번 비의 참황에 대한 자탄의 글을 보았다. 필자역시 “한님”에 대하여 기원도 하지만 저러한 참황에 대한 소감에서는 위의 글쓴이의 심정과 다를바 없음을 느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근 500년전의 세종대왕께서 그때의 세상형편에서 저렇듯 훌륭한 업적중의 하나인 측우기발명과 그의 설정으로 강우의 측정을 하신 그분의 영특한 두뇌에 다시한번 감탄과 찬사를 보낸다. 이렇듯 낙동강연변의 수재는 수년전에 가신 문인 고 박계주님의 순애보라는 저서에서 장마철에 낙동강범람으로 겪는 이 지방주민들의 참상을 그려낸것을 되그려 보며

오늘의 이 현실을 그때의 그것과 견주어 본다. 이 지방의 산세지형 및 기후로 따져서 과학적인 필유곡절이 내포되었을 것이다. 바라건대 나라에서는 그 까닭을 캐내는때는 과학기술처에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건설부에서는 치산, 치수사업에 요순과 같은 슬기로움과 판단으로 각종 방재시설을 장기적 대비로 마련하여 앞으로는 다시금 저러한 저주스런 일이 없어야겠다.

이와같이 폭우가 스쳐간 스산한 연변의 정경으로 자못 허탈에 빠진 흉중을 달래면서 차내의 일행과 담교를 함새 열차는 구포를 벌써 지나고 사상을 지나 부산시 외곽에 들어섰다. 차창밖은 여전히 부슬비가 나리고 있었다. 부산진역도 지나자 조금전에 여객전부가 차내방송을 하였듯이 부산역도착은 약15분 연착으로 도착하였다. 시간은 오후 4시 15분, 일행은 시령에 없었던 가방과 짐꾸러미를 내려서 챙겨 놓고 옷 매무시를 다시 한다음 차페로 하차를 하였다. 눈에 뜨인 부산역사는 금년봄에 중간준공을 본 신축건물이었다.

부산의 새로운 모습이 또하나 생겼다. 부산의 발전상을 상징하는것 같다. 일행은 구내에서 출구를 거쳐 밖으로 나와 당국에서 미리 마련한 배스에 올라 탔다. 안내역을 맡은 예쁜 아가씨가 부산사투리로 정답게 친절히 안내를 한다. 일동 흐뭇하기만 하다. 일행은 일로 지정된 숙박처인 해운대「극동호텔」로 향했다.

(전편) —끝—

(필자 전 본협회이사, 삼봉건축연구소)

冷暖房 衛生設備

설비설계 상담

경제적인 시공감리



동우기업사

서울特別市鍾路区鍾路六街267

덕성빌딩 307号室電話 (74) 2181番

